

푼 돈? 내겐 ‘삶’을 살게 하는 돈, 기본소득 월 65만 원

윤희주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운영위원

나는 20살부터 평화캠프 인천지부인 꿈샘 인연맺기 학교에서 자원활동을 했다. 이후엔 (지금은 평화캠프 소속이 아니지만)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어디에나 갈등은 있는 법. 당내가 시끄러웠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나는 내 삶에 와닿는 이슈 기본소득에 끌렸다. 결국 노동당을 탈당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모두의 것을, 기본소득 월 65만원’이라는 슬로건을 내 건 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했다. 이것이 기본소득과 나의 첫 만남이었다,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처음에는 저게 되겠냐는 의심, 기본소득을 받으면 무엇을 하지라는 설렘이 공존했다. 사실 너무 받고 싶었다. 누구에게 푼돈일지 모르는 65만 원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버는 내겐 삶을 살게 할 돈이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적은 돈이라도 충분했다. 온갖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급 제도, 일정 근무 기간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적성에 맞지 않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정책들은 나에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었다. 나는 나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기본소득이 소중했다.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을 제외하곤, 당 활동에 참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기본소득당 동물권 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에서 활동도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동물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도의 호기심이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동물에 대해 알게 됐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늘 기대고 있었지만, ‘고기’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던 이들의 눈을 보기 시작했다. ‘고기’가 아닌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게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나갔다. 나 또한 육식 위주였던 식습관을 반성하고, 이를 변화시켜나가는 삶을 조금씩 실천 중이다. ‘모두의 것’이라는 기본소득의 슬로건이 누군가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우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됐다.

어스링스 활동은 기본소득이 있는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씩 구체화하는 계기도 됐다. 길거리 동물과 공존하는 삶이다. 난 흔히 말하는 ‘애견인’이었다. 27년 내 인생엔 늘 유기견이었던 반려견이 있었다.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요크셔테리어다. 그는 전 주인에게 학대받았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내게 무한한 사랑을 줬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던 나에게 ‘온전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나를 치유했다. 누군가는 내가 공주를 키웠다고 하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키워냈다. 그러던, 2020년 2월 공주를 떠나보냈다. 사실 반려견을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 컸다. 용기가 없어서 다른 반려견을 들이기도 어려웠다.

우연히 길 위의 유기묘와 연이 닿았다. 상가건물인 우리 집 뒷 마당에 고양이 여섯 식구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고 무서워했던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기라도 하는지 이젠 개냥이가 다 됐다. 근처만 가도 내 옆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한다. 며칠 전에는 새끼가 또 태어났다. 정말 기쁘기도 하고, 벅찬 느낌까지 들었다. 하지만, 한 편으론 부담도 됐다. 당장 생활비 걱정이 있는데 새로운 식구를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다. 그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뒷마당에 유기고양이 몇 마리 더 와도 내가 챙길 수 있겠다.”

동물을 좋아하는 나로선 정말 행복한 상상이다. 다른 존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삶. 특히 한없는 사랑을 가진 동물들과 함께 하는 삶.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이처럼 기본소득 65만 원은 동물과 공존하는 우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

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고 싶다. 누군가는 그들(유기묘)이 길거리의 장애물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그들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오로지 ‘돈’으로 생산의 기준을 따질 것이 아니라, ‘행복’을 생산의 기준으로 바꾸자. 그럼 그들은 모두의 것을 만드는 존재들이다. 바꾸어 생각해봐라. 돈으로 생산하는 제품만이 존재하는 세상, 우리가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자연, 동물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기본소득은 돈이자, 우리 삶에 가려졌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터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젠 대선을 걸쳐 지선을 준비한다. 내가 사는 인천에도 기본소득당 후보가 있다. 나는 내가 사는 이곳에 기본소득이 도입되길 바란다. 누군가는 작은 울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울림 뒤에는 수많은 삶들이 있음을 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며,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말이다. 나는 그런 작은 줄기들이 이어져서 큰 나무가 되리라고 믿는다. 오늘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다.